

2017년 12월 13일, 애월읍 봉성리 봉성리경로당, 이효순 조사.
홍승화(남, 1944년생, 애월읍 봉성리)

- 줄거리: 봉성리에 있는 풍년이궐에 가서 말뚝을 박고 오면, 노름에서 잃은 돈을 모두 돌려받기로 하는 내기를 하였다. 노름에서 진 사람은 무서워하며 풍년이궐 앞에 말뚝을 박다가, 말뚝에다 자기 옷자락을 같이 박아 일어서려고 하니 옷이 찢어지는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. 내기를 한 사람은 그것을 그냥 이긴 것으로 인정하여 돈은 돌려주었다. 하지만 노름에서 진 사람은 낮이 나갔는지 삼 년도 못 살고 죽었다.

[제보자] 옛날에 시골에 앓이문 겨울 농한기에는 구들에 앓앙 화토를 많이 쳐주게. 경 험디 험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밀졌어. 진 사람 보고

“내기 청 이기문 내 돈을 주마.”

허난, 그 내긴 뭘 내기냐 허문 저 구물리 아래 내려가문 풍년이궐엔 험 디가 있어.

“풍년이 가문 그디 강 말뚝 강 박아동 오민 내 노름허영 밀진 건 다 주주이.”

허난, 아, 경 허키엔. 게난 이 양반이 이젠 뭇스와도 머리끝이 와썹헤도 간 거라. 내창 풍년이궐에.

[조사자] 풍년이궐?

[제보자] 풍년이궐. 경 허연 앓안 급헌 집에 말뚝 닥닥 박안 일러사젠 허난, 후리메에 곁이 뉘 박아 분 거라. 경 허연 재기 일러사난 ‘바악’ 브려지는 소리가 난. 이젠 귀신 낫젠 허멍 혼비백산허연 막 뛰어오는 거라. 집더레.

뒤에서 영 급안 뵈 내기 건 자가. 허난, ‘아, 요 사람. 요거 용긴 있어.’ 허난, 내기 천 그 사람이 이겼단 말이라. 경 허연 돈을 주고 헛는다.

그 사람이 그 녀으로 허연 삼 년도 못 살안 죽었다 허여. 영 험 전설이 있어. 이제 그 궐이 있주. 하천정비 사업에도 안 헛일 거라. 그 궐이 워낙 높고 커 노난.

- 핵심어: 풍년이궐, 노름, 내기, 말뚝, 혼비백산, 돈